

## 결정적 한걸음 그 이후의 삶

성경말씀: 출12:1-20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 교과서를 통해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한다.

1. 구원의 필요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창조 진화
2. 방해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의(righteousness), 거룩함(holiness), 100%, 죄 문제
3. 구원자: 우리와 다른 부류, 죄 없는 분, 단 한 번 대신 속죄, 그리스도, 같은 부류 No!
4. 원리를 이해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의 구원: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을 받아들이며 그분만 신뢰하는 것, 인격적 관계, 결정적 한 걸음, 새 생명이 들어가면 새 삶이 나온다.
5. 사람이 만든 전통: 구원 날짜, 성경 구절, 6일 성경 사경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다만 그것만이 구원의 방도이다. No! 구원의 날은 있지만 모두가 기억하지는 않는다.
6. 우리에게 확실한 날: 6000년 전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있었다.  
2000년 전 둘째 아담 주님이 죽으신 날, 우리도 같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다. 신분 변화, 소속 왕국의 변화 Good!!!

구원에서 그치면 갓 태어난 아이,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아이, 골치 덩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성장하여 하나님의 어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엡4:13-14)

지금 우리나라 교회(성도)의 문제: 성화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구원 이후는 방치

구원 구원 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행위가 심히 사악하다(세월호 사건), 교주의 교황화.

성경과는 상관없는 조직체, 구원을 미끼로 성도들 장사시키고 무지하게 혹사시킨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일까 할 정도로 의심이 든다.

목사가 돈, 돈 하고 변영만을 추구한다.

목사가 코미디 프로에 나와 한 마디 해 보려고 애를 쓴다. 애처로워 못 보겠다.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가? 예수님이 세운 교회인가? 바울이 선포한 교회인가?

완전한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인가? 그 안의 성도는 어떤가?

문제의 핵심: 결정적 한 걸음을 떼 이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결정적 한걸음 그 이후의 삶〉,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의 대답, 행하자.

###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이집트 탈출

이집트는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여기에 갇혀 살던 하나님의 백성의 구출, 그 이후의 삶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70명 이집트, 400년 머뭇. 민족이 형성됨. 더는 거기에 살면 안 됨. 백성의 학대, 부르짖음, 구출자 모세, 파라오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열번째 재앙: 이집트 전역의 장자의 죽음, 구출 방법: 어린양(12:3).

- (1) 그 ‘어린양’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2) ‘어린양’은 흠이 없어야만 한다(출12:5). (3) ‘어린양’은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6). (4) ‘어린양’은 대신 죽는 대속물이어야만 한다. (5) 다섯째로 ‘어린양’의 피를 뿌려야만 구원이 가능하다(출12:7).

그래서 그 날 어린양의 피를 집의 기둥과 설주에 뿌린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다(13).

뿌리지 않은 집에는 장자가 죽었다(29-30). 예외가 없다: 명예, 지위, 학식

그래서 피를 믿고 피를 뿌린 집은 다 구원받고 바로 그 날 드디어 이집트를 떠났다(40-42).

드디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기억해야 할 것: 이집트 탈출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가나안이 최종 목표

물론 이집트를 떠나야 한다. 그런데 몸만 떠나고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광야 40년은 구원 이후 성도의 생활: 구원받았지만 그 기간에 계속해서 원망/불평하는 모습

심지어 금송아지도 섬김, 집단 음행: 외부 사람들이 보면 한심한 일(지금의 교회와 비슷함)

이집트에서 배운 것을 버리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매일 주어지는 만나의 기적을 무시하고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면 문제”(민11:5)

“과거에 탐닉하던 육신의 욕정에 빠져 음행, 과음, 육설, 거짓말, 폭력을 부리던 것이 좋다고 하면 문제”  
베드로의 권고(벧전4:2-3)

바울의 권고(고전10:7-11)

### 고질적인 성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1월 14일(유월절) 바로 그 저녁 6시에 어린양을 죽이고 피를 뿌림(6, 14)

그리고 곧바로 1월 15(14)일부터 이레 동안 무교절이 시작됨(15): 핵심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유월절은 한순간, 무교절은 7일, 즉 구원 이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내 누룩을 치워야 한다.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죽는다(15). 구원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기쁨과 보상의 상실  
누룩은 무엇인가? yeast, 효소, 효모, 부패시키는 것, 빵을 부풀게 함, 포도즙을 포도주로 만들

누룩: 위력이 대단하다. 조그만 것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악과 도덕적 타락의 상징으로 쓰인다.

누룩이 있는 곳에는 썩는 일이 생긴다. 주의 만찬: 누룩 없는 빵, 포도 주스

고전5:1-8, 교회의 음행자, 육신 멸망(5), 교회와 성도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7, 음담패설,  
헛소문, 비방).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유월절 어린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한 기초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은 하나님과 신자와의 교제의 바탕인 신자들의 생활을 나타낸다.

유월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무교절은 하나님과의 교제

어린양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의 최종 단계이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명령은 구속된 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새 관계를 즐겁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다.

유월절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서는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 항상 누룩의 흔적을 없애야만 했다.

누룩을 치우지 않으면 교회, 성도, 목사가 비방 거리가 된다.

신자는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작이다.

구속받은 자들과 구속하신 주님 사이에 달콤하며 거룩히 구별된 사귀어 있어야 한다.

누룩을 치우기 전까지는 아무도 구원의 즐거움을 완전히 누릴 수 없다.

무교절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실제적인 성화와 교제를 상징한다. 평생토록

성화는 구원이 이루어진 뒤에 일어난다(고전5:7-9).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무교절이 유월절 다음에 나오는 이유: 구원 다음에 성화가 온다.

신분이 바뀐 뒤에 성화, 신분 변화 없이 성화 No good!

### 구체적인 누룩

1. 교리의 누룩(마16:5-6, 11-12)

구원을 가르치지 않는 것, 행위 구원, 7년 환난 통과, 성경 보존 부인, 칼빈주의 등 특정 인물의  
비성경적인 교리(무천년주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극단적 세대주의(구원의 방도가 시대마다  
다르다), 6일 창조 이외의 다른 교리(날 시대, 진화론 등)

2. 교회 공예배 누룩

구약식 교회: 제사장, 성전, 십일조, 축도 등, 록음악, 강해 설교의 부재, 통성기도(주여 3창)

3. 교회 치리 누룩

교황주의, 장사, 은행(다단계 등), 교회 건물 목사 개인 소유, 대 물리기(예수님, 바울)

4. 실행의 누룩(살전4:3)

파당, 음행(간음, 동성애), 법정 고소, 우상 숭배, 방언 등 오순절 은사 운동, 더러운 대화(골3:5-10)

### 성화의 방법

성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11:44-45; 19:2; 20:7; 벧전1:16).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어린양을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12:8-10).

어린양은 말씀이신 하나님(벧전2:2), 성령님은 진리의 영, 판단, 1과 3절을 설명